

‘고유가 여파’...道교육청, 현장 중심 추경 편성

3천여억원...학교 재정 압박 해소
냉·난방기 비용·통학차 유류비 등
7월 출범 통합교육청 제반 비용도

전남도교육청이 중동발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전남·광주 교육 통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3천여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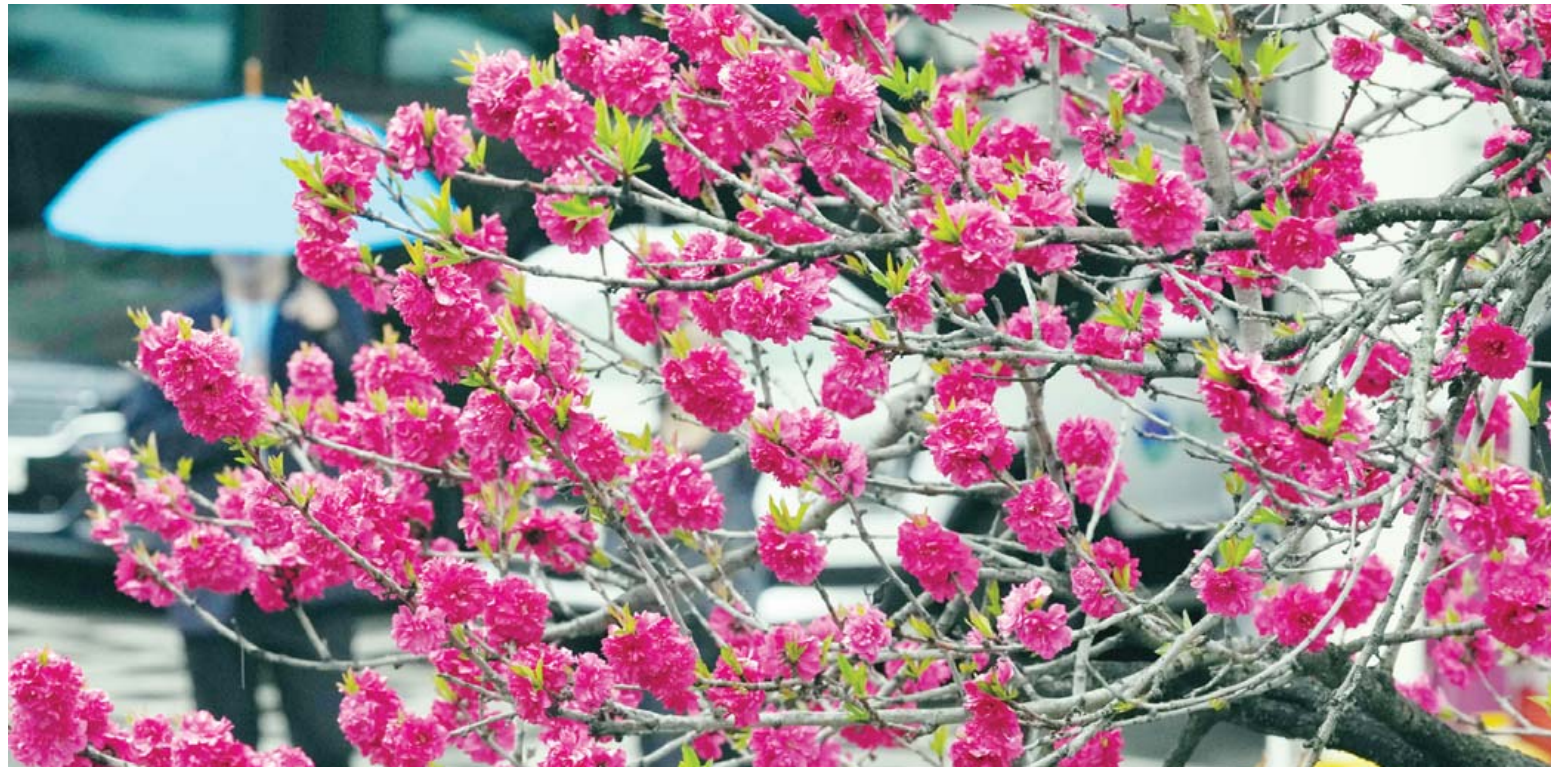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예상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중동발 고유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일선 학교가 겪고 있는 재정 압박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아침간편식사업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사업 등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현장 중심 맞춤형 추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는 전남·광주 교육 통합을 위한 초기 제반 비용도 포함된다.

통합 교육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행정적·물적 기반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양 교육청 통합 이후 조직·시스템 정비 등에 투입될 120억6천만원이 국회 교육위 추경안에 반영돼 예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봄비 속 만개한 겹벚꽃 많은 비가 내린 9일 오전 광주 서구청사에 만개한 겹벚꽃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다. /조영권 기자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추경에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최우선적으로 확대 편성하겠다”며 “특히 고유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학차량 유류비 등을 적극 지원해 교육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통합 교육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초기 제반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기틀을 견고히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예정보다 신속하게 추경을 준비하게 됐다”며 “가급적 통합 이전에 예산이 확정돼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심의 일정 등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교육의 지형을 바꿀

아래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예정보다 신속하게 추경을 준비하게 됐다”며 “가급적 통합 이전에 예산이 확정돼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심의 일정 등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 정부 개인기초연구사업 23개 선정...146억 확보

과기부 주관 핵심·신진연구 등

전남대병원 본·분원 의료진이 정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개인기초연구 지원사업에 대거 선정되며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9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 총 23개 과제가 선정되며 연구비 146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지원해 국가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연구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핵심 연구지원 사업이다.

전남대병원 소속 의료진은 향후 수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초·중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부문별로는 미래 리더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연구’ 사업에 총 15명이 선정돼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진 연구자의 연구 기반 강화와 초기 연구 전담을 돕는 ‘신진연구’ 사업에 7명, 젊은 과학자가 핵심 인재로 거듭나도록 돕는 ‘세종과학펠로우십’에 1명이 선정됐다.

전남대병원은 전주기 학술연구 지원,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특화 연구 영역을 육성 중이다.

정신 병원장은 “임상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료진들의 독창적인 연구 아이디어가 결실을 본 것”이라며 “연구자들이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며 혁신적인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의학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2→3명 증원해야”

전남광주 교사노조 촉구
“특별교부금 지원 명시도”

전남광주 교사노조가 행정 통합에 따라 부교육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통합 인센티브 성격의 특별교육교부금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를 통해 “통합특별시는 국가직 부시장 2명과 지방정무직 부시장 2명 등 4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감은 기존과 같이 국가직 2명만 규정하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 당시 논의됐던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시행령이 빠진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청 특별법은 광주·전남 1명씩 있는 부교육감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며 “완전한 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국가직 1명에 광주·전남을 담당할 지방직 2명의 부교육감을 두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노조는 “통합의 혜택이 교육자치 영역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통합특별시교육청에는 기존의 교육재정교부금 20.79%와 별도로 내국세의 1천분의 3(1조원가량)을 추가로 교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8 해질 19:01 🌧달돋이 01:49 달질 11:24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12/16	장성	맑음	11/15
목포	맑음	12/14	보성	맑음	12/17
여수	맑음	14/20	함평	맑음	11/14
나주	맑음	12/15	순천	맑음	15/20
완도	맑음	13/17	영광	맑음	10/13
구례	맑음	13/18	진도	맑음	11/14
강진	맑음	12/16	흑산도	맑음	9/12
해남	맑음	12/16	고흥	맑음	14/19
광양	맑음	15/20	담양	맑음	11/15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1.0-3.0	0.5-1.5
남부 먼바다(북)	1.5-3.5	1.0-2.0
남부 먼바다(남)	1.5-3.5	1.0-2.0
남해 앞바다	1.0-3.0	0.5-2.0
남해 먼바다(동)	1.5-3.5	1.5-3.5
남해 먼바다(서)	1.5-3.5	1.5-3.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7:07	12:44	여수	01:49	08:46	02:49	10:13
	19:02	--:--		13:54	20:06	14:20	21:21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70 **세차 7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50**
 실외건조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히

●주간 날씨

11일(토)	12일(일)	13일(월)
☀(7/20)	☁(9/21)	☀(10/22)
구름조금	구름많음	구름조금
14일(화)	15일(수)	16일(목)
☀(10/23)	☀(10/23)	☀(11/22)
맑음	맑음	구름조금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 있는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맛과 멋이 어우러진
능주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화순군 Hwasun-gun** 광고문의 : 062)650-2099